

# 목포시, 모빌리티·관광연계 게임 눈길

### ‘퍼퓸 오브 더 시티:목포’ 출시 쏘카 타고 목포 유명 명소 탐험 미션 완료 뎀 차량 대여료 할인



각 명소에 도착한 이용자는 주요 상징물과 GPS, 증강현실(AR) 등이 결합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향수의 재료가 되는 에센스들을 수집한다.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쏘카 차량 대여료 60% 할인 쿠폰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모든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는 이동시간을 포함해 약 2~3시간이 소요된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쏘카존에서 차량 빌리고 리얼월드 앱을 다운받은 뒤 목포역으로 이동하거나 목포역에서 쏘카를 빌리면 된다.

목포역 쏘카존에는 좁은 골목길에서 이동이 용이한 친환경적인 초소형 전기차(CEVO-C-D2)가 20대 이상 배치돼 있다.

목포시는 2019년부터 (주)쏘카가 주관하는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사업(산업부)’에 참여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핵심 관광자원이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의 우수한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등 전국의 수많은 젊은이가 목포를 찾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진도 다도해 경관·세방낙조 유람선 타고 본다

### ‘아일랜드 제이호’ 내달 운항

진도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과 세방낙조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유람선이 뜬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관광유람선(주)은 8월부터 ‘아일랜드 제이호’(사진) 관광유람선 운항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30일 오전 10시 진도 쉬미항에서 취항식을 연다. 아일랜드 제이호는 35t 규모의 유람선으로 최대 승선 인원은 75명이다.

관광 유람선은 하루 4~5회 쉬미항에서 출항

해 1시간 30분 다도해를 순회한다.

운행코스는 진도읍 쉬미항을 출발해 광대도(사자섬), ‘구명섬’으로 불리는 혈도, 양덕도(발가락섬), 주지도(손가락섬), 해식동굴과 천년불탑이 있는 불도,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세방낙조 앞 해상을 둘러 쉬미항으로 귀항한다.

진도군은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TF를 구성, 안내표지판과 차선도색, 해양 쓰레기 수거 등 관광객 맞이할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해남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박차

### 내년 용역 완료...2024년 완공

해남군이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공단지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내용으로 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용역 완료 예정인 제2지구 조성은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는 마산면 상등리와 용전

리 일원 약 22만9000㎡로 산업시설을 비롯해 주차장과 도로, 공원, 녹지 등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약 13만7000㎡로 주요 유치대상 업종은 청정농수산물 가공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보조제 등 식료품 제조업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제2지구는 이미 조성된 특화단지와 인접해 있어 지역 내 식료품 제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가 2019년 분양 완료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추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은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전신주(원 안)에 설치된 스마트 무인계측기.

## 완도군 스마트 무인계측기 코로나 방역 도움

###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국내 첫 운영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무인계측기가 운영돼 방문객 통계 신뢰성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완도군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방문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D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무인 계측기 5대를 설치했다.

해수욕장 내 스마트 무인 계측기가 설치된 것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처음이다.

스마트 무인 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명사변영회관 인근, 관리사무소 앞, 이벤트 광장 인근, 신지

울물 선착장, 소라횃집 인근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 출입구 3곳에 설치된 차량 계측기의 중복 집계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서길수 완도군 관광과장은 “스마트 무인 계측기 설치를 통해 기존 차량 계측기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방문객 입장 통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방역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신지 명사십리 주 출입구 9곳에 발열체크 부스를 운영하고 사전예약제, 070 안심번호 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식물 섭취나 흡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체계를 운영 중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신안농협, 마늘·양파 높은 가격 수매...농가 희망



이동치 신안농협 조합장이 마늘 수매현장을 찾아 출하된 마늘을 살펴보고 있다.

<신안농협 제공>

신안농협이 지역 특화 작물인 마늘·양파 수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안농협은 올해 양파 1만4554t, 마늘 2017t(대서마늘 509t, 남도마늘 1508t)을 전년도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 재배 농가에 희망을 안겨줬다.

신안농협은 장마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전 시장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올해 마늘 동향이 좋을 것으로 보고 수매가를 평균가보다 높게 측정했다.

농가들은 “신안농협 임직원의 깊은 관심과 노고로 인해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동치 신안농협 조합장은 “농업인이 잘사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